

기고

한국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으로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급률이 낮고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구조 속에서 탄소 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확보라는 두 가지 도전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RE100, 분산형 전원 확대, 재생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 속에서 농어촌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산림과 농지를 보존하면서도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수상태양광은 농지를 지키고 물을 아끼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표적인 공익형 사업이다.

수상태양광은 저수지와 담수호라는 유휴 수면을 활용해 산림과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전력을 생산한다. 농지를 잠식하지 않기 때문에 식량안보를 지킬 수 있고, 수면 위 설치로 물 증발을 줄여 농업용수 확보에도 기여한다. 햇빛 차단 효과는 녹조 발생을 억제하고 수질을 개선하며, 수면 냉각은 발전 효율을 높이는 효과를 낸다.

이처럼 수상태양광은 ▲농지와 산림 보전 ▲용수 절약 ▲수질 개선 ▲발전 효율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소득 증대 ▲온실가스 감축 등 일곱 가지 이상의 효과를 거두는, 말 그대로 '1석7조의 사업'이며 안전성도 충분히 검증되고 있다. 설치 자체는 중금속 유출 위험이 없으며, 전자파와 빛 반사율 또한 안전 기준 이내로 유지되어 사람과 환경에 무리가 없다. 실제 운영 사례에서도 수질에 부정적인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전반 고품호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대규모 수상태양광이 설치되어 수십만 가구가 사용할 전력을 공급하면서도, 발전 과정에서 수질 변화는 거의 없었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이익 공유가 이뤄졌다. 3MW 마을발전소의 발전 수익은 장학금과 마을 발전기금으로 환원되며 공동체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전국에 걸쳐 대규모 수상태양광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자원을 갖추고 있다. 특히 서남해안의 간척사업으로 생성된 담수호인 영암호, 금호호, 화성호, 탄도호, 아산호, 새만금호, 부사호, 간월호 등이 있다. 이곳들은 간척농지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담수호로 대규모 수상태양광 개발이 가능한 자원으로 국가 재생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할 핵심 자산이다. 특히 해남은 수상태양광과 더불어 솔라시도 AI 에너지 신도시와 RE100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미래 비전을 품고 있다. 이 사업은 AI와 재생 에너지를 결합한 첨단산업 육성과 인구 10만 명 규모의 신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해남은 이 두 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도약하고 있다. 물론 과제도 있다. 정책 기조의 변동, 복잡하고 지연되는 인허가 절차, 지역별 한전계통용량의 부족과 한계 등 불확실성은 사업 추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수질 오염, 경관 훼손, 전자파 등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우려가 일부 지역에서 확산되며 주민 수용성을 저해하기도 한다. 따라서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소통 강화, 제도 개선, 일관된 정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익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윈윈 인허가 체계를 마련하고, 추진 절차를 표준화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한다면, 수상태양광은 농어촌과 국가 모두를 살리는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수상태양광은 단순한 발전사업이 아니다. 농지를 보호하고, 수자원을 보전하며,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공익적 사업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사업을 통해 농어촌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에너지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길을 걸어갈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원도지사장 김대성

늘어나고 있다. 무기력증에 젖어드는 사람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가진 사람들도 노숙을 한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특별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에 대해 물어보면 늦게 등교해서 잔다고 한다. 첫 번째 일어나는 시간은 점심 시간이다. 그 후 또 잔다.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애초부터 무기력증 환자 만들지 않는 것이 상수

으로 일반화되어 나타나는 무기력증 '학습된 무기력'이라 한다. 만성적으로 지속 되면 우울증으로 변모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우선 이런 조건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너무나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물론 의도적이지는 않겠지만, 그 누가 자신의 가족들을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겠는가. 그런데 방심이 이런 현상을 빚어낸다. 핵가족 하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 바쁘게 움직여야 삶을 부지할 수 있다. 때문에 아침 일찍 집을 나선다. 늦은 밤이 돼서야 귀가한다. 이러한 동안 어린 자녀들은 방치될 수밖에 없다.

서민들은 물론 부유층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얻어지는 게 무기력증이다. 이를 방지하면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영원히.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성공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급선무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이자 학습된 무기력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마틴 셀리그만 교수팀은 동물들의 '숙달된 무기력'을 실험하던 도중 이런 원리가 인간의 무기력증이나 우울증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후 20여 년간의 숱한 실험과 현장조사연구를 통해서 비관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상황해석과 언어

표현 습관을 긍정적·낙관적으로 바꿔줌으로써 누구나 희망에 찬 낙관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인지적 치료법을 개발했던 것이다.

처음에는 무기력의 타성에 빠진 개에게 실험했다. 물이 젖은 바닥에 전기를 흘려보냈다. 피할 생각을 않고 그대로 앞드려 있었다. 그 정도로 무기력했다. 때문에 실험실 바닥에 전기를 흘린 후 무기력하게 엎드릴 때마다 목줄을 당겨서 안전한 방향으로 옮겨줬다.

그렇게 수없이 전기가 흐르지 않는 안전한 방향으로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경험토록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전기를 흘려서 고통을 줬을 때 놀랍게도 전과는 달리 발뺌 일어나 안전한 방향으로 뛰어 들어갔다. 즉, 긍정적인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자신감이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준 실험결과였다. 그렇다. 긍정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인간은 이 세상 그 어느 생물이보다도 학습능력이 뛰어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애초부터 무기력 증 환자를 만들지 않는 것이 상수가 아닐까. 명심하자.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지난 8일 오후 5시 55분쯤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물류센터 공사장에서 불이 나 1시간 5분 만에 꺼졌다. 이 화재로 4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시너나 페인트, 우레탄폼 등 가연성 자재들은 용접 작업 중 불티에 의해 쉽게 착화되고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크다.

공사장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자

특히 대형 건설 현장엔 이같은 자재를 지하 주차장 등 내부 공간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연소 확대 가능성이 높다. 공사장 화재는 주로 용접 불티와 부주의, 안전에 대한 소홀함 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다면 건설 현장에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수칙은 무엇이 있을까? ▲공사장 내 화재취약요인 점검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확인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 위험 주의 당부 ▲관계자의 자율점검을 통한 안전관리 당부 ▲가연물 주변 흡연 금지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가스 등의 제거를 위해 작업 전 환기 철저 ▲화재 시 사업장 내 근로자 대피를 유

도하는 '화재감시자' 지정·배치 등이 있다.

공사장 화재는 발생 건수는 적지만 재산피해가 크기 때문에 공사장 화재 예방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화재는 타인의 집이나 건물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재난이다. 공사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귀중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자. 고흥소방서 과역119안전센터 한선근

오늘의 운세 2025년 9월 17일 수요일 (음력 7월 26일)

<p>48년생 불평없고 속 깊은 친구를 찾아가자. 60년생 여자가 기속하감사 하별이내자. 72년생 못미치는 점수반성문을 써보자. 84년생 때마침내 정표현타벽이 들려온다. 96년생 알도 모르는 척하늘만 쳐다보자.</p>	<p>49년생 기억에서 사라진 초심을 찾아보자. 61년생 감정 상해저도 의리를 지켜보자. 73년생 과분하다 싶은 계안을 들어보자. 85년생 군더더기 없는 안색을 보여주자. 97년생 용기 있는 고백받은 것을 얻어낸다.</p>	<p>50년생 이어달리기 하듯 꾸준히 가야한다. 62년생 괴로운 거절로 책임을 피해보자. 74년생 일하던 결과 못그림이 그려진다. 86년생 열심히했던 준비출발에서 보자. 98년생 최고가 되겠다는 욕심을 가져보자.</p>
<p>51년생 조금은 다른 과정 변화를 가져보자. 63년생 늦게 만난 인연 사랑하고 지켜보자. 75년생 욕심이 아닐까 되짚어보아. 87년생 이익은 미완성기회를 다시 하자. 99년생 지급거절이 원칙을로서기 해보자.</p>	<p>52년생 복잡해진 세상 열심히 따라가자. 64년생 자제력 엄살 땅을 치고 후회 한다. 76년생 놀림을 당해도 한 우물을 파보자. 88년생 안따개운 실패정함과 맞바꾸자. 00년생 스승과의 만남 가르침을 받아보자.</p>	<p>53년생 문밖에서 기다린 손님이 해보자. 65년생 고맙다 인사 깊은 경이 쌓여간다. 77년생 복이 낄수록 우렁각시가 되어보자. 89년생 작은 나이다. 체면을 우선하자. 01년생 사소한 승부도 자존심을 걸여보자.</p>
<p>54년생 훌륭한 미담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66년생 반가운 기별이 웃음을 되찾아준다. 78년생 위험한 시도 후폭풍이 크게 온다. 90년생 이름다 운범 추적이 만들어진다. 02년생 결한다. 청정에 반짝반짝 빛난다.</p>	<p>55년생 좋다 하는 유혹도 만성을 피우보자. 67년생 청춘인양 뜨거운 열정을 피우보자. 79년생 일회성이 아닌 우물을 파. 91년생 낮은 자세 겸손 기회가 되어준다. 03년생 영리한 대답에 궁금함이 풀려간다.</p>	<p>56년생 불안했던 표정은 이내 지워진다. 68년생 꿈인지 생인지 호사를 누리보자. 80년생 험난했던 여정 이야기로 꾸며진다. 92년생 어설펠던 순서 간짜가 되어간다. 04년생 잠시오는 위기 씩씩하게 맞서보자.</p>
<p>57년생 생각을 멈추는 단순함이 필요하다. 69년생 소탈한 살림 살이 낭비를 막아보자. 81년생 기쁨이 담겨진 선물을 받아보자. 93년생 희망이라는 그릇이 피어낸다. 05년생 조종하고 바쁘게 목표를 향해가자.</p>	<p>58년생 나스레도 떨고 정단도 맞춰보자. 70년생 방법이야기이다. 옛로 해야 한다. 82년생 결코 가볍지 않은 약속이 고고간다. 94년생 이겨져 것구동양고긴히 쓰여진다. 06년생 후기 들던 도전 결투임을 알 수 있다.</p>	<p>47년생 이만큼 잘한다. 무용담이 펼쳐진다. 59년생 주구반반은 인심 부자가 되어보자. 71년생 강력한 약이 되는 충고를 들어보자. 83년생 최고의 명예 계급장이 달려간다. 95년생 성공이라는 목표 눈으로 보여진다.</p>

<p>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p>	
<p>회장 이충암</p>	<p>발행인·대표이사 정길화</p>
<p>편집인전 광준</p>	<p>편집국장 박신주</p>
<p>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p>	<p>광주광역시 광안구 광산로 20번길 8, 2층</p>
<p>대표전화 (062) 525-9775</p>	<p>&lt;팩스&gt; (062) 528-4566</p>
<p>회장실 (내선) 210</p>	<p>편집국 교 2001</p>
<p>임원실 (내선) 207</p>	<p>경영부 교 2003</p>
<p>총무국 교 2002</p>	<p>사회부 교 2004</p>
<p>광고국 교 2006</p>	<p>사업국 교 2007</p>
<p>인쇄 (주)대 한칼라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3,000원 · 1년 30,000원</p>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